'유해 야생동물과의 전쟁' 48시간 동행 취재

화순 휘젓던 150㎏ 대형 멧돼지

"탕탕탕…" 엽사 쏜 총 맞고 '풀썩'

"으르렁. 으르렁.", "쿠우쿠. 쿠우쿠." 눈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사냥개들이 무엇에 홀린 듯 사라졌다. 이어 사냥개가 짖는 소리와 콧김을 내뿜으며 씩씩거리는 멧돼지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다.

(사)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화순군지회(회장 차길수) 소속 20년 경력의 베테랑 엽사(獵師) 이용식(50·화순군 한천면)씨의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졌다. 사냥개와 연결된 GPS(위성항법장치)가 가리키는 지점을 향해 2~3분쯤 달렸을까. 150㎏은 족히 될 멧돼지 한 마리가 사냥개 3마리에 온몸을 물린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반항하고 있었다.

베테랑 엽사 7명 사냥개 동원

비봉산 자락 이틀간 추적 포획

전남 4개 시·군 수렵 개시 '인간의 역습' 한창

멧돼지는 자신의 귀와 옆구리, 꼬리 등을 물어뜯고 있는 사냥개들을 매단 채 몇 걸음 기어가더니 이내 엽사가 쏜 총을 맞고 꼬꾸라졌다.

남도에 첫 눈이 내린 2일 오후 2시께 화순군 능주면 비봉산 자락. 엽사들과 기자는 그동안 화순 일대를 마구 휘젓고 다니던 멧돼지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화순을 비롯한 전남지역 4개 시·군에 수렵이 허용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엽사들은 이날 새벽 "멧돼지 6마리가 몰려다니는 것을 봤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포획 기회를 노려왔다.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헛걸음을 치자 멧돼지의 이동 범위를 좁힌 것이 주효한 것이다.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인간의 역습'이 시작됐다.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화순과 보성, 장성, 강진 등 전국 19개 시·군에 순환수렵장이 개설돼 대대적인 '소탕령'이 떨어진 것이다.

환경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조수에 의한 전남지역의 피해액은 71억9천500만원에 이른다. 종류별 피해 규모는 전력시설(39억원), 양식장(18억3천770만원), 농작물(14억5천만원) 등이다. 전국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555억1천900만원)의 13% 가량이 전남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멧돼지는 수확을 코앞에 둔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가 하면 공공연히 도심까지 내려와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

논밭에서 먹이를 찾지 못한 멧돼지는 골프장에 살고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필드를 마구 파헤치기도 한다.

전남의 경우 멧돼지의 서식 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전남에는 ㎢당 멧돼지 8.6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국 평균(3.8마리)의 두 배가 넘는다. 적정 서식 밀도는 ㎢당 1.1마리 수준이다.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멧돼지의 개체수 조절이 불가피한 셈이다.

한편 2일 현재 전남지역 수렵 신청자는 1천360명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 2개월까지 4개월간 최대 9만2천514마리까지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하다. 수렵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14종으로 서식밀도에 따라 군별로 포획가능 야생동물과 개체 수에 차이가 있다.

/화순=김형호기자 khh@

멧돼지의 최후 바람이 막히고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잠을 자던 멧돼지가 갑작스런 사냥개들의 공격에 놀라 거세게 반항하고 있다.〈사진 위〉 사냥개들이 멧돼지를 물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압하자 나무 뒤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엽사가 멧돼지를 향해 총을 쏘고 있다. 맨 아래는 총탄을 맞아 쓰러진 멧돼지가 살아있는지 최종 확인하는 모습. /화순=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애매한 신종플루 휴업 기준안

학교 혼란만 부채질

전남 16개교 118명…휴업 없어

광주는 6개교 부분 휴업 돌입

지난달 31일자로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휴업(휴교) 기준안이 까다롭고, 현실과도 동떨어져 학교의 혼란만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고열의심자가 20%가 넘으면 휴업 등을 하도록 했으며, 전남은 감염률, 확산속도 등 질병요인을 모두 고려해 휴업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감염률 기준으로 최소 15% 이상 돼야 휴업을 하도록 함에 따라 이 기준에 따를 경우 현재까지 휴업이 가능한 학교는 없다.

전남지역 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매일 1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지만, 특정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급이나 학년에서 감염자가 최소 15%의 기준을 채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휴업기준안이 발효된 지난달 31일 이후 전남지역 학교에선 16개교 118명의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했지만, 단 한곳도 휴업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235개교에서 1천16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28개교가 휴업 조치를 내린 것과는 대조된 모습이다.

광주에선 기준안 마련 이후 처음으로 2일 6개교(초등학교 5, 중학교 1)가 부분 휴업에 들어갔다. 학년 휴업은 2개교, 반 휴업은 4개교 였다.

이날 광주에서 휴업한 학교 중 일부는 휴업 학년 외에도 나머지 학년에서 산발적으로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발견됐지만, 기준안 때문에 전교생 휴업 조치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해 교과부에선 휴업기준에 미달해도 '학교장 자율휴업'의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준을 벗어나 휴업을 결정할 학교장은 거의 없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이는 휴업을 한다고 해서 신종플루 감염 학생이 줄어들 것이란 확신이 없는데다, 부족한 수업일수와 휴업을 꺼려하는 맞벌이 부부 등 일부 학부모의 항의 등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수업일수는 220일 이상으로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축·운영할 수 있지만, 상당수 학교는 이미 감축 기간을 재량활동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 모 고등학교 교장은 "학교장의 자율휴업이란 애매모호한 단서조항 보다는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세우고, 법정 수업일수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안 해상 어선 '기우뚱'

선원 1명 사망·선장 실종

2일 오전 9시께 신안군 임자면 수도 북쪽 2㎞ 해상에서 신안선적 9t급 유자망어선 N호가 강풍으로 선체가 기울면서 선원 이모(35)씨가 숨지고 선장 양모(40)씨가 실종됐다.

이씨는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진 선장 양씨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저체온증으로 숨졌고, 양씨는 실종됐다. 이씨의 시신은 출동한 목포해경과 주민들에 의해 인양됐다.

해경은 민간자율구조 선박 등을 동원해 양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높은 파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사망사고' 불법주차 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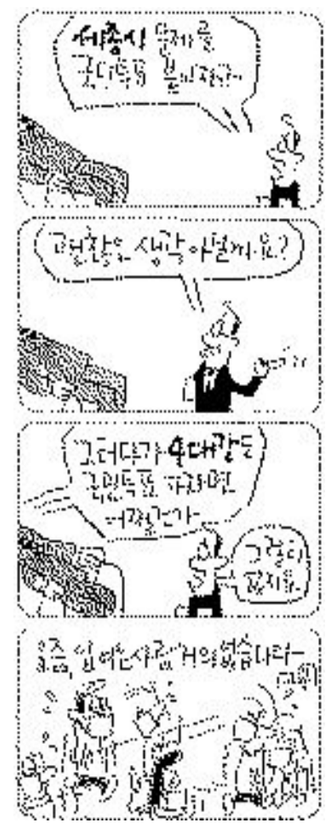
'업무상 과실치사상'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2일 자동차 전용도로에 화물차를 불법주차해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주 지모(52)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20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 빛고을로 안전지대에 자신의 화물차를 불법주차한 뒤 귀가했으며 40분 후 달리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게 해 승용차 운전자 김모(52)씨와 부인(48)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김씨의 아들(24)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나우찬 〈7943〉 김종두



배드민턴 경기 출전 60대 숨져

지난 1일 오후 4시20분께 화순군 H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경기에 출전했던 신모(61)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신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경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꼬마 로우킥 폭행' 가해자는 중학생

쌍나팔

○…인터넷에 서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꼬마 로우킥 폭행 사건'은 고교생 3명이 3년 전에 장난삼아 저지른 짓으로 밝혀져 충격.

○…경기경찰청은 2일 어린이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꼬마 폭행' 동영상을 3년 전 찍어 친구들의 휴대전화 등에 유포한 A(19)군 등 고교생 3명(당시 중3)을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

○…A군은 2006년 7월께 친구 B, C군과의 '가위바위보'에서 패하자 사전 약속에 따라 길을 지나던 피해아동(7~8세 추정)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뒤 이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

○…문제의 동영상은 D(19)군에 의해 지난 9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이후 지난달 27일부터 각 포털사이트 등에서 '로우킥으로 꼬마 패는 청소년'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연합뉴스